

손명수 차관, “항공사 고용안정·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 지원 강화”

- 29일 9개 항공사CEO 만나 정부지원대책 공유, 신속 집행의지 표명
- 항공사의 고용안정·자구계획 등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
- 성장잠재력 유지 위해 조업사 등 항공운송 연계사업 동반 지원

□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(수)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·제주항공 등 9개 주요 항공사와 한국·인천 공항공사가 참석한 가운데,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-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그간 발표하였던 항공산업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총괄부처로서 항공사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,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98.1% 감소하고, 올해 상반기 6조 원 이상의 항공사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,
 - 금융, 고용, 세제·시설사용료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, 20만 명에 달하는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※ 그간 발표된 항공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

- (2.17, 항공업 지원) LCC 운영자금 긴급융자 등 긴급 피해지원과 운수권 배분 등 신규시장 확보지원, 운용리스 공적보증 제공(수은), 슬롯확대 등 안정적 경영지원
- (3.18, 항공업 지원Ⅱ) 항공사 사업권 보장(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),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폭 및 대상 확대, 조종훈련 대체 등 적극행정
- (2.28, 민생대책) 중소기업·소상공인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(25%)
- (4.1, 지원방안Ⅲ) 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상향(25→50%) 및 대기업·중견기업 임대료 신규 감면(20%)
- (4.9, 지원방안Ⅳ) 지상조업사 지원확대(계류장 사용료 100% 감면, 3개월)
- (4.22, 기업안정화 지원)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·운용(40조원),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소요 지원(산은·수은)
- (4.23, 주력산업 대응 I) LCC 추가지원, 시설사용료 감면·납부유예 연장(3개월), 항공기 재산세 감면·징수유예, 지상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

□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주요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하여,

○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, 4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마련된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항공사 스스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,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국제선 운항중단 상황인 항공사가 휴업에 돌입하고, 현원 대비 70%의 인력이 휴직·임금삭감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항공업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

- 고용유지지원금 및 휴업·휴직 수당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항공분야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끝으로 손 차관은 항공사 외에도 심각한 경영악화 상황을 겪고 있는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, 항공운송업과 전·후방 연계 산업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항공안전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,

* 4.29(수) 국토교통부-지상조업체 간 간담회 개최 예정(항공정책실장 주재)

○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 항공산업이 세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실질적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.

○ 아울러 5월 초 연휴를 맞이하여 일부 항공편 예약률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, 연휴 기간 동안 양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.

2020. 4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